

2018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

권위의 관계망: 동티모르의 국가 만들기

유민지

동티모르는 다양한 권위들이 국가 범주에서 실효적 영향력을 지닌다. 오랜 기간의 외부세력의 통치 (동티모르는 200 년간의 포르투갈 식민지, 24 년간 인도네시아의 지배, 10 여 년의 유엔 미션의 정주)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와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사회관계가 형성되고 있을 만큼 전통적 권위가 지배적인 사회이며 이와 동시에 포르투갈 식민지 유산인 천주교가 국가의 정체성으로 표현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 독립 이후 UN 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근대국가제도 역시 법적 실효적 권위를 갖는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동티모르는 글로벌 사우스 사회가 보이는 다원성에 다양한 권위들이 국가단위에서 공존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하이브리드 성격 또한 보여주고 있다.

본 세미나는 이러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사회가 평화건설 (peacebuilding) 국가건설 (statebuilding)에서 가정하는 베버의 근대국가 개념이 동티모르 국가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복잡성에 기반한 권위의 관계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동티모르 국가 형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민지 박사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Humanitarian and Conflict Response Institute 에서 Hybrid state formation in Timor-Leste 라는 박사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시아연구소에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며 holistic legitimacy 라는 개념으로 동티모르의 국가성을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Post-liberal peace, Hybridity, State theory in the Global South, Indigenous methodology 이다.

일시: 2018 년 11 월 13 일 (화), 12:00-13:00

장소: 아시아연구소 (101 동) 303 호